

歓迎のことば

今日 関西大倉高校と善隣インターネット高校の姉妹提携締結 38 周年のために古川英明校長先生と平井教頭先生、そして高寺清同窓会会長様と多くの同窓会の皆さんがお忙しい中、元気な姿で遠く韓国までお越しになられたことに対し、善隣インターネット高校と善隣インターネット高校総同門会を代表し「歓迎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また、善隣インターネット高校朴ジョングウン校長先生と総同門会の皆様にも謹んでお礼申し上げます。

歴史と伝統を誇る関西大倉高等学校と善隣商業高等学校は 1984 年 6 月 23 日両校の姉妹校の調印をして、引き続き両校の同窓会と総同門会も姉妹提携調印を成立させました。姉妹提携書には“両校は歴史的に深い関係にあって、相互理解と友誼を確認して将来においてより良い国際交流を図って、相互理解と友誼を深くして、両校の教育の発展に貢献しようと今日姉妹学校として縁を結ぶ”となっています。その実践の一環として今まで深い友情の交流を続けるようになってから 38 周年に至りました。

今日 38 周年があるまで関西大倉高校の先生方と関西大倉高校同窓会長様以下、同窓の皆さんの緊密な協調があつてこそ、私を含めた多くの善隣の同門が同じ考えをも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協調に私どもは大倉高校の先生方並びに関西大倉高校同窓会の皆様に関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この 38 年間の努力を土台にして、私たちはより一層友好交流を持続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日参加された両校の皆様方と同門の皆さんは永遠のパートナーとなり未来永劫、更に発展した交流が行わ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望みます。

二つの学校の交流が今後も続くことを願い私の挨拶の言葉と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2 年 11 月 25 日

善隣インターネット高等学校総同門会会長

安 京憲

#### 환영사

오늘 관서대창고와 선린인터넷고의 자매결연 체결 38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후루카와 히데아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타카테라 키요시 총동창회 회장님과 많은 동창회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정을 미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멀리 한국까지 방한해 주신데 대하여, 선린인터넷고와 선린인터넷고 총동문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린인터넷고 박종운 교장선생님과 총동문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서 대창고와 선린상업고등학교는 1984년 6월 23일 양교의 자매학교 조인식을 하였으며, 그에 이어 양교를—창회와 동문회도 자매결연 조인식을 성립시켰습니다.

자매결연서에 “양교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와 우의를 확인하고 장래에 있어서 보다 좋은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깊게하고, 양교의 교육상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오늘 자매학교로서 인연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깊은 우정의 교류를 계속한 지 어느덧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38주년이 있기까지는 대창고 선생님들과 대창고 동창회장님 이하 동창님들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 하였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선린동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에 저희들은 대창고 선생님들과 대창고 총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하게 현재와 같은 우호적 분위기의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 환영사

오늘 관서대창고와 선린인터넷고의 자매결연 체결 38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후루카와 히데아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타카테라 키요시 총동창회 회장님과 많은 동창회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정을 미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멀리 한국까지 방한해 주신데 대하여, 선린인터넷고와 선린인터넷고 총동문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린인터넷고 박종운 교장선생님과 총동문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서 대창고와 선린상업고등학교는

1984보. 6월 23일 양교의 자매학교 조인식을 하였으며, 그에 이어 양교을—창회와 동문회도 자매결연 조인식을 성립시켰습니다.

자매결연서에 “양교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와 우의를 확인하고 장래에 있어서 보다 좋은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깊게하고, 양교의 교육상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오늘 자매학교로서 인연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깊은 우정의 교류를 계속한 지 어느덧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38주년이 있기까지는 대창고 선생님들과 대창고 동창회장님 이하 동창님들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 하였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선린동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에 저희들은 대창고 선생님들과 대창고 총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하게 현재와 같은 우호적 분위기의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